



#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 Grace Korean Church Mission News

2018년 8월 26일  
선교사 현황(금일기준)  
56개국 316명 선교사  
(자체 파송 76%)

1-714-446-6200~6, 1-714-446-6208(직통)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gkcgmiusa@gmail.com 한국 GMI본부 82-2-472-7060  
www.gmimission.org(Korean) Kimkwangshin.com

### 중남미에서 온 소식 I - 멕시코 이종식 선교사 은혜한인교회 파송, 사랑의 빛 선교교회 협력

Aug 15, 20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 “여러가지 사역의 병행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산**름!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와 예배로 시작됨을 감사합니다. 지난 달에는 세 지역의 아홉 제자들과 30일 동안 성경 공부와 기술을 가르치고 집으로 돌아가 남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힘들고 난관이 있었으나 끝까지 인내로 잘 마치게 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름 방학을 맞아 제자들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제자 리더들의 영성과 믿음이 더욱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무더워도 저희는 증인의 삶을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은 내륙 방문의 순연관계로 4명의 제자와 상킨틴으로 갑니다. 시원한 오후의 시간에 전도와 예배를, 저녁에는 핫도그를 100개 준비해서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무더위에도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곳에는 300포의 시멘트가 또 어떤 곳에는 재활원 건축이, 교회가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아버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여름 성경학교를 17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커피 전도와 새벽 컵라면 전도는 아직도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몇 단기사역팀이 있지만 두렵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사역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무더위에 종들의 사역이 더디 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 기도제목

1. 차파스 교회 건축 마무리를 위해
2. 노갈스 재활원 벽돌 3000장
3. 나보아 교회 기초 300포 시멘트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4. 사역 감당을 위한 건강 회복을 위해

멕시코에서 이종식 선교사 드림

### 광고

1. 매 주일 9시30분-11시(2부 예배시간)에 선교부 기도모임이 비전센터 223호에서 있습니다.
2. Amazon.com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com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charitable organization 리스트에서 "Grace Korean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 GKC 비전을 위한 기도제목

1. 이방인의 총만 수와 이스라엘의 구원 (롬11:25 ~28)을 위한 총체적 선교를 위해
2. 온전한 성결, 전적인 헌신으로 순교적 선교 감당
3. 미전도 종족 지역 7,000개 센터 교회 세우기 위해
4. 제자화, 교회개척, 토착화를 위해
5. 선교사 훈련원 & 신학교(17)를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K국, J국(3), 대만, o국, i국, 캄보디아, T국, 케냐, 미국, 페루,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쿠바

### 김광신 원로목사의 선교사역 위해

1. 건강 회복과 새 힘 주심
2. 성령충만, 권능충만, 세계선교 마무리 사명 감당
3. 9/10-9/14 미주 선교사 훈련원 강의
4. 9/17-9/20 국제 총회
5. 9/23-10/6 베네주엘라 T.D 및 신학교 강의

### 한기홍 담임목사의 선교사역 위해

1. 성령충만, 능력충만, 세계선교 마무리 사명 감당
2. 영육간의 강건, 이 시대 영적 리더로서 사명 감당
3. 교계와 선교계를 잘 섬기는 사명 감당
4. 9/17-20 국제 총회
5. 9/23-26 GTD 189기 (여자)

### 단기선교 현황 및 행사

9/3(월) ~ 9/13(목)	브라질 AFA#15 단기선교 팀멤버 모집 S/D: 송중호 목사, Rector: 김수영 집사 회비: 항공료+\$500 문의: 장준영 집사 213.718.3006
10/15(월) ~ 10/22(월)	Cuba AFA #3 TD 단기선교 팀멤버 모집 S/D: 김광신 목사, Assi st S/D: 송중호 목사 Rector: 장해규 안수집사, Coordinator: 권혁석 회비: 항공료+\$500 문의: 스틸라 전도사 213.344.8932
10/19(금) ~ 10/27(토)	파라과이 의료선교 팀멤버 모집 회비: 항공료+\$500 문의: 김영수 장로 714.417.2001
10/29(월) ~ 11/7(수)	o국 개척선교 팀멤버모집 팀멤버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웨딩체플 회비: 항공료+\$500 문의: 박혜숙 전도사 714.388.2896

### 선교사 입국 현황 (8월 26일 기준)

강영철/희영(선교사훈련원) 714.343.5525  
강형민/숙진(키르키즈스탄)  
박성직(보안지역) 213.587.2088  
서용복(보안지역) 714.272.5827  
오석기(선교사훈련원)  
주경자(보안지역)714.625.6500  
한성우(러시아) 714.726.5939

### 권역별 선교사 현황

선교사 현황	국가	선교사
구 소련	7	35
아시아	20	169
아프리카	6	24
중남미 / 포어권	13	40
유럽	8	21
북미주	2	27
합계	56	316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사랑하는 LA 은혜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은혜교회 성도님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1국 교인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길을 여셔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첫인상은 ‘조용에서 조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잠자는 수많은 영혼들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곳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주에 필요한 서류들(Residential Permit)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통과되었고, 거주는 교인 시 남쪽 외곽에 있는 운치리 지역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지금은 불편함 없이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반엔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지금은 더위가 한 풀 꺾여서 어려움이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끔 대규모 시위가 있기는 하지만 치안은 안전한 편입니다.

지금은 심보로스대학교 ELTIS 어학원을 다니며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1국어로 학생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은 영어를 배우고 있고, 나중에 1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아내는 동반자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개인 교습으로 1국어를 배웁니다. 이곳은 스페인어, 1국어,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후에 사역에 따라 언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이 언어가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신분 노출에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인 것이 발각되면 며칠 안으로 추방됩니다. 1국은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복음화율이 낮아 복음을 전하면 쉽게 노출됩니다. 최근에 전1국선교사협의회 통계에 의하면 1000명의 한국 선교사들 중에 300~400명의 선교사들이 비자가 거부되거나, 추방되거나, 다른 나라로 사역을 옮겼습니다. 신분에 대한 보안과 비자 유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언어를 배우며 이곳의 지리와 환경, 생활방식, 가치관, 문화 등을 익히고 있습니다. 관련 서적을 읽기도 하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며, 또 지역을 돌아다니며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1국은 한 나라이지만, 여러 나라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도, 인종도, 문화도, 종교도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지금 모스크바 주 교인 시에 들어왔지만, 모스크바 나라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아내와 함께 1국에 대한 소명을 받고 이곳에 왔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서 지금으로써는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확실히 잘 모르지만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앞으로 언어공부에 집중하며, 이곳의 필요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고 사역과 사역자 / 선교사 양성 사명을 받고 왔지만, 이곳의 필요 조사도 선교 사역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의 필요에도 있다고 봅니다.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가족들, 특히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위험한 도로에서 신호가 멈출 때마다 와서 구걸 하거나 물건을 파는 아이들의 소망 없는 애절한 눈빛을 볼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어떻게 전해줘야 할지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의 빵을 들고 인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어습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이 이곳의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이 이곳의 영혼들에게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동역자 여러분분의 믿음과 기도와 삶의 현장에 부으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살롬

1국에서 한자, 손오 선교사 드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IT를 봉사단을 통한 사역 문 열기”

몰도바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몰도바에는 7월에 한국에서 봉사단이 왔습니다. 이 봉사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IT를 가르치는 봉사단입니다. 한국 국제협력단(KOICA)에 속해 있는 NIA에서 파송하는 봉사단으로 모두 국가 비용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개발국가에 IT와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약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4명이 1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집니다. 몰도바에는 몇 년째 이 봉사단이 방문하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팀들은 대학생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작년까지는 4명이 왔었는데, 올해에는 7명이 오게 되었습니다. 옆 나라인 우크라이나는 아직 봉사단이 오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팀들이 봉사하는 동안 옆에서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봉사하는 학생들과 공부하는 몰도바 학생들 모두 불편하지 않도록 기본 환경을 조성해주고 돕는 일입니다. 작지만 한국을, 한국어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기도제목

1. 주님 말씀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2. 한국어센터를 세우는 일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9월 학기 시작을 목표로 기도로 준비하며 대학 기관에 한국어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을 배정받고,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언어(루마니아어)가 잘 외워지고 익힐 수 있도록 (9월부터 시작하는 언어 코스에 다시 도전하여 부족한 언어를 제대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2016년 초에 6개월 코스 수료 후 다시 시작하는 정규 과정입니다.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 속히 만날 수 있도록
5. 함께 사역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6. 나의 부족을 아시는 주님이 잘 채워주시기를

몰도바에서 정석영 선교사 드림